

텍스트중심 품사론

- 브링크만의 '레데 Rede이론'을 중심으로 -

이재원(덕성여대)

1. 서론

인간 또는 인간관계를 ‘형식주의’나 ‘이상화된 추론’보다 이론적으로 선행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파이크 K. L. Pike는 복수관점 multiple perspective에 가치를 둔다. 왜냐하면 그는 한 가지 관점만으로 어떤 사건·사태의 부분들을 구분하게 되면, (혹 질서정연하게 구분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을 사실로부터, 사람을 사람으로부터, 관점을 관점으로부터, 혹은 사람을 사실과 관점으로부터 고립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파이크 1994: viii이하). 그래서 ‘이론’은 방에 나 있는 ‘창문’과 같다는 그의 개념을 받아들이면, 개개의 이론들은 연구대상의 일부만을, 즉 한 번에 한 방향만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파이크 1994: 2이하 참조). 그러나 우리들은 집밖의 전체 풍경을 조망할 여러 방향으로 나있는 다양한 창들이 필요하다. 즉 우리들은 특정분야를 위한 다양한 이론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언어학의 품사론에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텍스트언어학 방향의 창으로 나있는 품사론에 대한 논의는 자세히 볼 수 없었다. 아마도 그 이유는 1960년대 중반 이전에는 아예 창이 나 있지 않았을 것이고(‘텍스트언어학’이라는 명칭은 1950년대 후반 코제리우 E. Coseriu(1981: 6)에 의해서,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1964년경 독일 뮌스터 대학의 하르트만 P. Hartmann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임), 그 이후에는 창이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른 새벽이라서(이를테면 본고의 중심이 되는 브링크만 H. Brinkmann의 이론들이 시대를 앞서 갔음을 의미함), 두터운 커튼에 가려서(초창기 텍스트언어학은 텍스트소 Textem의 연결, 소위 텍스트통사론 Textsyntax 부분에만 집착한 경향이 있음), 창이 너무나도 비좁아서(텍스트언어학에서는 품사론을 대수롭지 않게 간주함. 왜냐하면 당시까지 품사론은 한 문

장 내에서의 언어 현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므로), 또는 심한 안개 때문에 (품사론 자체가 지니고 있는 만만치 않은 복잡성 또는 언어권마다의 독특한 자기만의 고유한 품사론 때문에) 밖의 경치를 식별할 수 없음에 연유할 것이다. 본고는 밖의 경치를 위해 이러한 커튼을 걷어 젖히는 것, 또는 창을 넓히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서 필자는 브링크만의 ‘레데(텍스트)이론’에 기댔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커튼을 걷어 젖히거나 창을 넓힐 수 있는 많은 도구들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2. 레데의 정의

19세기 전반, 뉘 F. Bopp에 의해서 일반언어학이 독자적인 학문으로 자리 잡은 이후, 언어학의 가장 큰 연구단위는 문장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를 위한 가장 유명한 예는 블룸필드 L. Bloomfield에서 유래한다. 그에 따르면, 문장은 “어떠한 문법적 구조에 의해서도 어떠한 큰 언어형식에 포함되지 않은 독립된 언어형식”(1933: 170)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60년대 초반, 텍스트언어학이 본격적으로 태동하던 이전 시기부터, 브링크만에 있어서는 언어연구의 마지막 단위가 문장이 아니라, 레데가 언어연구의 최종단위로 설정된다. 브링크만은 문장을 ‘닫힌 문장 geschlossener Satz’과 ‘열린 문장 offener Satz’으로 구분하는데, 여기서 열린 문장이란 독자적으로 이해 가능한 문장이 아니라, 선행 문장과 후속 문장의 관계에서만 이해 가능한 문장을 일컫는다. 이와는 달리 문맥이나 이전 문장 또는 후속 문장과 관련 없이도 이해될 수 있는 문장은 닫힌 문장이다. 이를테면 의문문은 후속 문장인 대답문을 요구하고, 역으로 대답문은 바른 대답을 위한 선행 문장을 요구한다. 때문에 이런 경우, 하나의 문장을 넘어서 문장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언어 연구의 최종단위인 ‘레데’를 이루게 되며, 이것이 의사소통 단위 kommunikative Einheit가 된다.¹⁾ 브링크

1) 브링크만(1971(1962): 704 이하). 이전문장과 이후문장 또는 문맥을 요구하는 ‘열린 문장 offener Satz’과 이러한 것들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닫힌 문장 geschlossener Satz’을 상정하면서 시작되는 브링크만의 ‘독일어문법’의 ‘레데’ 장은 이미 ‘텍스트언어학적’이다. 텍스트언어학의 장에서 이와 유사한 견해는 하르벡 R. Harweg의

만은 텍스트라는 술어 대신 줄곧 레테를 고집했다. 이유는 레테가 입말과 글말을 모두 포함하는 것임에 반해서, 텍스트는 언어학의 한 부문 영역의 술어로 정착되기 이전에는 오로지 글말에만(일상적인 뜻에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되었기 때문에, 레테라는 표현에서 글말만을 오해할 여지를 제거하려는 데 있다(홍승우 1988: 164을 참조). 이것은 레테라는 술어 사용이 — 훗날 이런 사용법에 의해서 텍스트언어학의 주류에서 소외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지만 — 무척이나 ‘고심한 흔적’의 결과임을 드러내는 일면이다. 브링크만의 레테는 빠를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대화 파트너를 고려한 개념이고, 이것은 불어의 ‘discours’, 그리고 영어의 ‘discourse’와 유사한 개념이다. 다시 말해서 브링크만에 의하면 레테는 ‘랑그’에 대립되는 시현 된 언어로서의 ‘빠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발화 Gesamtäußerung의 구성과 분절 Aufbau und Gliederung을 말한다. 이를테면 레테는 행해지는 말 자체가 아닌 전체 발화가 있게 하는 사전 조건이며, 대부분의 문법에서 최대의 통사적 단위로 간주되는 문장은 레테의 종속단위일 뿐이다(브링크만 1965: 157을 참조할 것). 따라서 그는 “레테를 구어적·문어적으로 된 언어단위로 칭한다. 레테는 더 이상 [자신보다] 더 높은 언어단위의 구성요소가 아니다.”(브링크만

‘텍스트시작문장 Textanfangssatz’과 ‘텍스트연속문장 Textfortsetzungssatz’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전자는 선행문장 없이도 이해될 수 있는 문장(이를테면 전조용 요소/전조용어/전방지시대명사가 없는 문장), 후자는 그 반대의 경우를 가리키고 있다. 하르벡(1968: 152이하). 이러한 하르벡의 문장 개념 또한 — 이성만이 올바르게 지적했듯이 — 극히 ‘텍스트언어학적’이다: “이들[텍스트시작문장과 텍스트연속문장]을 문장유형(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주문장, 부문장, 복문 등)과 비교해보자. 전통문법의 구분에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며, 이런 문장유형학이 하르벡가 말한 TAS[텍스트시작문장], TFS[텍스트연속문장]의 구분과 무엇이 다른가? 전통문법의 구분에 공통적인 것은 이들이 문장언어학적인 성질의 것이라는 점이다. 주문장(주절)과 부문장(종속절), 단문과 복문의 구분은 텍스트에서 이 문장들의 위치나 기능을 묻는 것이 아니다.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의 구분은 순전히 문장의 기능을 묻는 것이기는 하지만, 역시 텍스트 언어학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다. 즉, 어떤 문장이 평서문이나 의문문이나 명령문인지는 각 문장의 텍스트 맥락을 목표로 삼은 기준들에 기대어 정해진 것이 아니다. TAS, TFS의 구분은 텍스트에서 문장들의 위치나 기능을 묻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일차적으로 통사론적 성질이 있는 전통적인 구분은 개별문장들의 내부 구조를 겨냥한 것이고, TAS, TFS의 텍스트언어학적인 구분은 문장들의 내부 구조를 넘어서 개별 문장을 뛰어넘는 구조를 목표로 삼은 것이다.” 이
성만(2000: 168).

1971(1962): 723). 이 인용문에는 이미 레데가 가장 상위에 위치하는 언어 단위라는 사실이 내포되어 있고, 바로 이것은 — 방식에 있어서는 — 위에서 언급한 블룸펠드의 문장 정의와 매우 유사하다. 왜냐하면 블룸펠드에 있어서는 문장이 가장 큰 단위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제일 마지막 문장이며, 경우에 따라서 레데는 하나의 문장으로도 성립될 수 있다(브링크만 1971(1962): 724을 참조).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브링크만이 처음으로 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와 유사한 견해를 포르찌히 W. Porzig가 이미 개진했었고(이재원 2004b을 참조), 보다 이전에는 훔볼트 W. v. Humboldt 또한 그와 비슷한 주장들을 제기한 흔적들이 있기 때문이다(이재원 2004a을 참조). 그러나 이것은 본고의 주제에 비껴남으로 훗날의 과제로 미루고, 다시 브링크만의 레데 개념으로 돌아가 보자.

3. 레데의 기본 요소

브링크만에 의하면, 전체적인 언어현상인 레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모멘트가 필요하다.

- 1) 지평 Horizont
- 2) 상황 Situation
- 3) 레데 사슬 Redefolge

이에 관해 간략히 살펴보자.

3.1. 지평

브링크만의 레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의 세 가지 개념에 대한 우선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상황’이나 ‘레데 사슬’에 비해서 ‘지평’이라는 술어가 이채롭다. 이것은 일찍이 글린쯔 H. Glinz에 의해서 제기된 개념이며(글린쯔 1959), 문예학에서 ‘기대 Erwartung’라는 개념과 유사하게 사용되는

술어이다. 그러나 브링크만의 지평은 ‘그때마다 수행되는 레테의 각 파트너들에게 알려져 있는 것’ 또는 ‘각 파트너들이 그때 그때마다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지평은 형태화되거나 명시적인 언어표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²⁾ 대화파트너들이 각자 소유하고 있는 자신만의 지평은 대화가 진행되면서 보편적인 지평으로 합치되기도 하고,³⁾ 자기만의 지평을 고집하게 되면 서로 이해가 불가능해져서 대화가 중단될 수도 있다. 대화를 진행하는데 본질적인 것은 지평의 교환 여부와 어떻게 그 교환이 생겨나는가에 달려 있다. 따라서 갑자기 대화에 끼여든 사람은 이해하는 도중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즉, 대화에 갑자기 끼여 든 사람은 테마화 되어있는 일정한 말들은 순간적으로 정리할 수가 없고, 따라서 그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이미 대화하고 있던 사람들이 테마화 된 모든 것들을 털어놓거나 또는 이미 그런 테마에 대해서 일정한 선지식이 있으면 비로소 이해가 가능해 진다(쉐르너 2002b: 30를 참조). 지평을 언급하는 이유는 화자와 청자와 관계, 저자와 독자와의 관계를 정확히 규정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들은 지평 속에서 상대방이 알고있는 것이나, 상대방이 시시각각 생각하는 것을 이해하려 한다. 화자는 적절한 발화 *Äußerung*를 사용해서 청자를 자신의 지평으로 끌어들인다. 그런 후 서로의 지평이 드러나면서 대화가 진행된다(브링크만 1967: 78을 참조).

3.2. 상황

브링크만의 ‘상황’은 언어 외적으로 현존하는 모든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각각의 레테에서는 언어적인 것과 언어 외적인 것이 만나게 되는데, 언어 외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상대방이 가리키고 지시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며, 레테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시영역 *Zeigfeld*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을 뜻한다. 지칭하는 모든 것(나, 너, 여기, 저기 등)은 지시

-
- 2) “그것[지평]은 커뮤니케이션 파트너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서로간에 관계, 이들의 사회적 역할, 경험, 기억, 기대 그리고 당연히 ‘사전지식’도 포함하고 있다.” 브링크만(1971(1962): 70).
- 3) 여기에 관한 자세한 예는 「단화(短話) ‘밤에는 쥐들도 잠잔다’의 텍스트언어학 분석」(이재원 2003a)에 자세히 나와 있다.

영역을 이룬다. 이러한 상황은 대화에 참여하는 상대방에게 이야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브링크만 1966: 381을 참조). 상황과 지평이 있기 때문에, 대화파트너들은 상대방에게 공통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을 언어로 나타낼 필요가 없다. 따라서 화자는 언어수단을 절약할 수 있다(브링크만 1966: 383을 참조). 예를 들어보자.

1)

[...] 자전거가 길 가운데서 이쪽 방향으로 왔습니다. 갑자기 그는 여기서 왼쪽으로 핸들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자리에서 추월하고 있는 차에 빨려들었고, 저기까지 끌려갔습니다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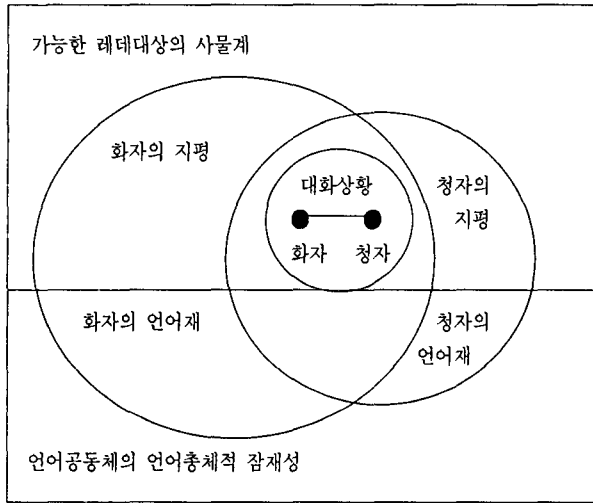
[...] 자전거가 역전 거리 가운데서 시내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갑자기 그는 역전거리의 로터리에서 남쪽 순환로 쪽으로 좌회전하려고 했습니다. 로터리 가운데에 있는 운하 덮개 근처에서 그는 추월하는 자동차에 빨려 들었고, 인도로 끌려갔습니다 [...] (쉐르너 2002b: 32이하).

예시문 1)과 2)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에 교통사고를 목격한 증인이 사건 경위에 대해서 경찰에게 말하는 내용인데, 1)은 사고 지점에서, 2)는 동일한 교통사고를 경찰서에서 조서로 꾸미는 과정이다. 1)에서는 증인 자신이 관찰한 것을 기술하게 되는 역전 거리에 있는 사건현장의 구체적 지각공간이 중요하다. 따라서 증인은 모든 것을 ‘언어화’시킬 필요가 없고, 단지 ‘지시어’로서 충분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몸짓으로 사실진술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⁴⁾

4) 이와 유사한 예들은 김종갑에 의해서 — 다음과 같이 — ‘비유적·부르조아적’과 ‘직설적·프롤레타리아적’이라는 술어로 정리되는데,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이것은 너무나 많이 나아간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상황의 유무’ 정도의 선에서만 머무는 것이 타당하겠다. “동일한 사건을 서술하는 노동계층의 언어와 중류층의 언어의 차이를 예로 들어보자. 1) One boy kicks the ball and it goes through the window. 2) He kicks it and it goes through there. 이 두 문장의 차이는 무엇보다도 언어 외적 상황에 대한 의존성의 정도와 지시대상의 현존에 대한 전체의 유무에 있다. 노동계층은 이미 존재하는 [...] 상황을 구태여 명시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거시기’라는 대명사 하나로 사건을 총망라해서 서술할 수 있다. ‘거시기가 거시기를 차서 거시기가 거시기를 넘어갔다.’ 이점에서 실제개는

3.3. 레데 사슬

상황이 언어외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인 반면에, 레데 사슬은 실제로 주어진 또는 실현된 언어현상을 일컬으며, 대화가 일어나는 시간적인 선후관계는 레데 사슬이란 개념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레데의 구성소인 문장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레데의 3가지 기본요소는 브링크만의 수제자인 웨르너에 의해서 훗날에 다음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모델로서 발전한다(웨르너 2002: 124).



여기서 상황은 언어 외적으로 주어져 있는 어떤 것이고, 지평은 상대방의 언어 능력에 잠재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며, 레데 사슬은 실현된 텍스트 현상이다. 이러한 모델은 커뮤니케이션 모델의 일방향성을 비판하는 슈미터 P. Schmitter의 주장과도 상통한다(슈미터 1981: 190).

거시기의 장에 역동적으로 위치한 화자들과 상황의 상호 관계라고 할 수 있으며, [...] 하지만 중류층의 언어는 실재계적 통합의 성향과 대립적으로 상징계적 차별화, 분리화, 분절화로의 특징을 보여준다.” 김중갑(2004: 7).

3.4. 레데 기본 구성요소의 필요성

브링크만이 레데의 이해를 위해서, 도대체 왜 이 세 가지 요소만을 핵심적인 카테고리로 상정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자. 그는 하르벡 R. Harweg의 교수자격논문인 『대명사와 텍스트구성 Pronomina und Textkonstitution』에 대해 자신의 주저 『독일어 Die deutsche Sprache』의 1971년 개정판에서 간략히 언급하고 있다. 이를테면 그는 그 유명한 하르벡의 일절인 “텍스트란 언어단위를 병렬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끊임없이 이어지는 대명사 사슬”(하르벡 1968: 148)에서 ‘대명사 사슬’을 자신의 ‘레데 사슬’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자면 브링크만은 하르벡의 논문이 발표되던 1965년(출간은 1968년) 이전에 벌써 이와 유사한 자신의 견해들을 피력했다). 이런 와중에, 텍스트언어학의 초창기에 많은 기여를 했던 바인리히 H. Weinrich가 『시제 Tempus』(1964)에서 ‘말하기 상황 Sprechsituation’을 언급하게 되는데, 바인리히에 기대면, ‘말하기 상황’은 “모든 통사적인 것들의 척도”(바인리히 1964: 289)이며, “두 질서의 단면이며, 그 속에서 언어와 세계는 조우한다.”(바인리히 1964: 24). 그래서 이 두 명의 초창기 텍스트언어학자들은 훗날 독일의 텍스트언어학의 요람 중의 한 곳이 된 보쿰 Bocum대학에서 행해진 토론에서, ‘말하기 상황’과 ‘레데 사슬’이 각각 텍스트 구성에 필수적임을 인정한다. 이로써 — 필자의 견해에 의하면 — 브링크만은 바인리히의 “말하기 상황” 또한 레데 이해를 위한 필수적인 기본 요소로 간주함에 주저함이 없었을 것이다. 덧붙여서, 이러한 구체적인 말하기 상황은 대화 파트너가 지시 영역으로서 어떤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지평 또한 레데 이해의 기본이 되는 중요 요소가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살펴본 브링크만의 ‘지평’, ‘상황’, ‘레데 사슬’은 레데를 구성하는 세 가지 모멘트로서, 이러한 레데 구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많은 언어 요소들이 관여한다.

4. 레데구성

비록 문장 내에서 나타나지만, 문장을 넘어가는 텍스트를 위하여 형성된 여러 가지 언어 수단이 있음은, 이제 텍스트언어학에서 별로 새로운 것이 없는 하나의 공리화 된 주장이며, 때로는 진부하다. 그러한 언어수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허사 虛辭’라는 사실을 브링크만은 이미 오래 전에 간파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브링크만은 레데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전통적 의미에서의 대명사, 접속사 그리고 불변화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명사는 ‘내용이 비어있는’ 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를테면 명사는 일정한 내용과 관련 있는 것을 전달하는 반면에, 대명사는 텍스트를 통해서야 비로소 알려지는 여러 내용들을 위해서 열려있다. 이로써 대명사는 ‘실사 實辭’인 명사나 형용사와 구분된다. 그러나 허사라고 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인용문만 보더라도 허사의 중요성을 감지할 수 있다.

의사소통에 있어 토씨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명사나 동사와 같은 것들만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오해는 이름에서도 나타나는데, 전자를 허사(虛辭)라 하고 후자를 실사(實辭)라 하는데서도 알 수 있다. 허사는 과연 허깨비인가? 실사만이 실(實)한 것인가? 예를 들어보자. ‘철수가 때렸다’와 ‘철수를 때렸다’라는 두 문장은 토씨만 다르고 실사는 똑같다. 그런데도 두 문장의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장영준 2001: 15).

독일어에는 여러 가지 대명사(인칭 대명사, 소유 대명사, 부정 不定 대명사, 의문 대명사, 부정 否定 대명사, 지시 대명사)와 허사류들이 있지만, 이들 각각의 대명사들은 — 비록 ‘대명사’라는 하나의 명칭에 묶여있지만 — 브링크만의 텍스트 구성적 차원에서 따져보면 상이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⁵⁾

5) 사실 브링크만은 명사와 형용사 그리고 동사와 같은 실사도 레데 구성에 입각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품사들이 레데 구성의 미치는 역할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품사들은 “내용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텍스트가 아닌] 문장 안에서 일정한 자리를 확보”(브링크만 1971(1962): 742)하고 있기 때문에 레데 구성에

4.1. 대화 상황(역할 분담)과 연관된 언어요소

4.1.1. 인칭 대명사

통상적으로 일컫는 ‘대명사’는 자체로서 내용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운곽어 Umrißwörter’로 이해되는 브링크만의 대명사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지시한다. 이것은 ‘명명어 Nennwörter’로 일컬어지는 기존의 품사명인 명사나 형용사와는 기능이 다르다(브링크만 1971(1962): 743을 참조). 브링크만이 대명사를 운곽어로 명명한 것은 기존의 품사명을 텍스트언어학적 개념을 이용하여 재명명한 것으로, 이것은 문장 안에 출현하지만 자신의 그때마다의 규정성을 어떤 문장 내에서 얻는 것이 아니고, 문장들로 구성된 레테 내에서 획득함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대명사의 지시범위는 곧잘 문장을 넘어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운곽어는 자신의 규정성을 지평이나 상황 또는 레테 사슬에 의해서 획득할 수밖에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명사와 관사를 합친 것을 지시한다.⁶⁾ 일견, 이것은 별 것 아닌 단순한 사실 같지만, 텍스트언어학적 차원에서는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때 명사와 결합하는 관사는 이전 정보(정관사) 또는 이후 정보(부정관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대명사를 문장 초월적 transphrastisch 언어 요소로서 간주할

대한 영향력이 미약하므로 본고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겠다.

- 6) 이를테면 황종인에게서도 이러한 주장을 발견 할 수 있다. “우리는 누구를 한 사람으로, 모두를 모든 사람으로 늘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셈말 하나와 명사 하나로 늘어 볼 수 있는 낱말들을 부정대명사(indefinite pronoun)라 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언어생활을 지배하는 경제의 원칙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다. 예컨대 프랑스말의 *au*와 도이치말의 *zum* 같은 토는 전치사와 관사가 하나씩 들어간 낱말 사슬이 줄어 붙어서 만들어져서 겹으로 보기에만 낱말처럼 보이지 실제로는 낱말이 아니다. 부정대명사 누구도 이들처럼 보기에만 낱말처럼 보이지 실제로는 낱말이 아니다. 부정대명사 누구도 이들처럼 품사가 다른 낱말 둘이 녹아 붙어서 하나로 된 것이기 때문에 엄격히 보면 낱말이 아니다. 누구만 아니라 모든 부정대명사가 다 그렇다. 나는 이와 같은 낱말 아닌 낱말들을 가리켜 옷가방말(portmanteau word)이라고 부른다.” 황종인(1996: 257). 따라서 “부정대명사 ‘jemand’의 부정형인 ‘niemand’는 세 가지 단위가 합쳐진 것이고, 이러한 현상은 한국말과 비교하면 분명해 질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말에서는 이들이 ‘아무도 (누구도)... 안’ 같이 허리가 끊겨 나타나기 때문이다.” 황종인(1996: 251).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 전통적 의미에서의 — 대명사들을 브링크만의 레데 구성의 세 가지 모멘트에 의거해서 나눠볼 수 있다. 브링크만에 기대면, “인칭 대명사와 소유 대명사는 하나의 문장이나 명사 또는 명사적으로 표현된 개념이 화자에 해당되는가 또는 청자에 해당되는가를 진술한다. 양자는 동사의 인칭형처럼 화자와 청자의 관계, 즉 의사소통에서의 역할과 관계가 있다.”(브링크만 1967: 81). 다시 말해서 화자(ich/wir)는 잠재적 청자(du/ihr/Sie)이고, 반대로 청자는 잠재적 화자이다. 또한 하나의 대명사로 늘 동일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역할 교체는 대화 중에 수시로 일어난다(물론, ‘나. 서술문 Ich-Erzählung’에서 ‘나’는 동일한 대상을 지칭할 수 있다). 따라서 브링크만에 의하면, 인칭 대명사는 역할어 Rollenwörter에 속한다. 역할어인 인칭 대명사에게 제공된 ‘윤곽’은 대화에서의 역할이다. 대화 도중 이러한 역할을 소유하고 난 후에야, 역할 소유자에게 교체되는 내용이 제공된다. 그러나 이러한 1, 2인칭 대명사와는 달리 역할어가 아닌 3인칭 대명사 ‘er’는 대화 파트너 상호간에 대화 관련 요소가 이미 알려져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준다(브링크만 1971(1962): 743을 참조). 이런 식의 정의는 인칭 대명사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와는 판이하게 다른, 텍스트언어학적 방식을 취한 인칭 대명사의 정의이다. 이러한 역할어는 독일어에서는 성의 구분이 없다. 그것은 아마도 실제 커뮤니케이션에서 상대의 (자연적인) 성을 어려움 없이 구분할 수 있음에 연유하겠다.

4.1.2. 소유 대명사

소유 대명사 ‘mein, dein, sein, ihr’는 — 엄밀하게 정의하자면 — 소유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명사 내지 명사무리 앞에서 그것을 한정한다. 즉, 홀로 출현하지 않고 명사 내지 명사무리의 앞에 위치한다. 따라서 소유 대명사 앞에는 관사가 올 수 없다. 왜냐하면 소유 대명사의 역할이 관사의 역할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혹자는 전통적인 학교 문법에서 사용하는 ‘소유 대명사’라는 명칭을 ‘소유 관사’(임우영 외 2001: 25이하) 또는 ‘관사적 대명사’(김기영 1989: 5)로 바꿔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충분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따라서 브링크만에 의하면, 소유 대명사 역시 인칭 대명사와 마찬가지로 역할어에 속한다. 이것들은 대화 도중에 ‘말하고 듣는 역할’과 관계 있

다. 따라서 이미 언급한 인칭 대명사(1인칭과 2인칭)와 소유 대명사는 대화 상황과 관련 있다(브링크만 1971(1962): 745을 참조).

4.2. 지평과 연관된 언어요소

‘대화 상황’ 또는 ‘역할 분담’과 관련 있는 ‘인칭 대명사’ 또는 ‘소유 대명사’와는 달리, 레테 구성의 세 가지 모멘트 중에서 지평과 관련된 언어 단위가 있는데, 부정 대명사 *Indefinita*, 부정대명사 *Negativa*, 의문사, 몇 개의 접속사와 불변화사가 여기에 속한다.

4.2.1. 부정 대명사 *Indefinita*와 부정 대명사 *Negativa*

부정 대명사 *Indefinita*는 범주 *Kategorie*는 있지만, 대표자 *Repräsentant*가 없다. 다시 말해서 화자가 그때마다 관계를 맺는 범주와 지평이 언어로 주어 진다는 전제조건이 있다(브링크만 1967: 79을 참조). 예를 들어 화자가 부정 대명사 ‘man’을 선택하게 되면, 화자는 상황 내에서의 의미실현을 피하고 청자에게 그 선택을 넘긴다. 따라서 부정 대명사 ‘man’은 청자의 지평과 관련 있다. 그러나 부정 대명사 ‘jemand’가 ‘er-대명사(er, es, sie)’류로 재 진술 될 수 있는 반면, ‘man’은 재 진술 될 경우 또 다시 ‘man’으로 단지 자신을 반복 해야만 한다는 사실에 의해서 역할어에서 온전한 부정 대명사로의 전이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부정 대명사 *Negativa*는 언어 지평에 주어진 카테고리를 제공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에 들어맞는 대표자의 선택을 배제한다(브링크만 1971(1962): 746을 참조).

4.2.2 의문사

성과 수에 대해서 중립적인 의문사(여기서는 의문사를 의문 부사, 의문 형용사, 의문 대명사를 포함하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사용한다)의 성과는 시시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브링크만에 의하면, 의문사는 범주 표시인 의문사로 나타나는 위치가 상대방에 의해 채워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것은 대리 선택이

수신자에게 자유로운 부정 대명사 Indefinita의 기능과는 다르다. 다시 말해서 부정 대명사는 수신자 자신이 대리를 선택할 권한을 갖고 있는 반면에 의문사는 수신자로부터 대리자의 명명을 바란다. 또한 의문사는 언어의 지평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범주에 관해 알려 준다. 그래서 대화 파트너로부터 이 범주 내용 규정과 정보를 종결짓는 답을 기대하게 한다. 따라서 의문사는 언제나 대화문(교대 레데)에서 성취감을 찾는다. 그때 선행 문장이었던 의문사는 원하는 정보를 알려주는 후행 문장을 야기한다. 또한 대화를 함에 있어서 의문사는 윤곽을 지음으로써 언제나 중요하게 대두되는 카테고리(브링크만 1971(1962): 749을 참조). 이러한 경우 결국 — 의문사는 이후 정보만을 끌어내는 것만이 아니라 — 질문이라는 것은 이전 정보와 이후 정보의 교량 역할로 이해된다. 청자의 이해를 보증해주는 문맥이나, 지평이 미약할 때, 이러한 청자는 화자가 되어 이전의 레데를 이해하기 위한 부족한 정보를 보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다.

페터는 자기 친구 클라우스를 찾아간다.

페터: “야 클라우스! 생각해봐!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었어!”

클라우스: “어떤 원숭이가?”

페터: “아하, 나 오늘 동물원에 갔었어. 그리고 거기서 [...]” (셰르너 2002b: 47)

다시 말해서 의문문은 — 정상적인 경우 — 계속적인 언어행위, 즉 그 의문문에 대한 대답을 필요로 한다. 이런 형태의 문장들은 계속 이어지는 레데에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장들은 대화자와 공통성을 만들어 유지하려는 목적을 갖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의문 대명사는 상대의 지평과 연관을 가진다. 브링크만에 의하면, 레데 내에서 레데의 한 부분으로서 문장은 한 번 사용되고 난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제시된 문장의 영향이 계속 유지되거나 보완되면서 이어진다. 다시 말해서 레데에는 문장 항상성 Satzkonstanz⁷⁾이 존재한다. “문장은 자신이 함축하고 있는 관련들, 문법적 구

7) ‘항상성’은 원래 생물학에서 유래했는데, 베르나르트는 외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내적 환경을 될 수 있는 한 일정한 상태로 유지할 목적으로 기능 하는 것이 생물체라는 독특한 논리를 전개하였다. 예컨대 기온이 10도 상승한다고 해서 체온

조 그리고 선택된 문장모형을 통해서 자신을 넘어서 작동할 수 있는 있다”(브링크만 1971(1962): 705)는 의미를 가진 이러한 문장 항상성 개념은 브링크만의 레테 이론의 핵심이다.

4.2.3. 접속사와 불변화사

일반적으로 접속사는 ‘두 개 이상의 낱말, 구, 절, 문장을 연결하는 낱말’로 이해되고 있지만, 브링크만의 접속사들은 단순히 레테 사슬을 이어주는 ‘대등적 연결 koordinierende Verbindung’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자의 지평에 토대를 둔 기대를 표현하기도 한다.

화자는 그것[접속사]들을 가지고 자신의 지평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지평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주어져 있는 지평을 상호 관련지을 수 있다(브링크만 1971(1962): 776).

이 10도 올라가지 않고 발한 작용에 의해서 체온이 조절되는 것처럼, 생물체는 안정적인 내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조절기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맨 처음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서 대상으로부터 받는 감각 정보가 수시로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안정된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는 것이 항상성이다. 예컨대 어떤 여자가 눈앞에 다가오더라도 그녀의 몸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즉 대상이 위치한 거리에 상관없이 그 크기를 항상 같게 지각[크기 항상성]한다. 창문이 열렸다가 다시 닫히기까지 여러 모양으로 변하지만 같은 모양을 가진 창문으로 보인다. 즉 관찰자의 시각방향에 관계없이 항상 같은 모양을 가진 것으로 지각[모양 항상성]한다. 빨간 사과는 아침이건 저녁이건 빨간 색으로 보인다. 즉 주변의 조명 조건에 관계없이 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경향[색채 항상성]이 있다. 우리가 머리를 좌우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방안에 걸린 액자의 위치가 바뀌지 않는다. 즉 관찰자가 움직이더라도 대상 그 자체는 다른 대상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지각[위치 항상성]된다. 이인식(1992: 70, 216)을 참조할 것. 이로써 유추해 보면, 브링크만의 ‘문장 항상성’이란, 문장사슬이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정보가 수시로 변화에도 불구하고 청자는 그러한 레테를 (자신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정적인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지각하게 된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문장 항상성이 없다면 인간은 의사소통에 적응할 수 없고, 이는 곧 환경에 적응할 수 없음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브링크만(1971(1962): 713)을 참조할 것.

따라서 브링크만에 있어서 — 우리들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 접속사의 문장연결 기능은 부차적이다. 왜냐하면 접속사는 파트너의 지평에서 만들어진 기대감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브링크만은 접속사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크게 분류한다.

1) 문장에서의 독특한 서두 역할을 하며, 뒤에 휴지가 따른다: ja, nein, bewahre, na, na ja 그리고 감탄사인 hm, ah, ach, oh, oha, pa 등. 이러한 낱말들은 화자의 입장을 표현하고, 독자적인 발화로 나타날 수 있다. 하나의 문장을 대표하는 이러한 단위들처럼, 대화의 단위로서 접속사나 연결어들이 출현할 수도 있다: und? (계속을 요구하는 질문) aber! (방어적), also! (확정적), oder? (다른 가능성에 대한 질문), doch (부정하는 단위를 가진 의문문에 대해 부정하는 대답), so? (이미 제시된 정보에 대한 놀라움).

2) 문장 내에서 영가 자리 Nullstelle를 차지하는 낱말들: und, oder, denn, allein, jedoch(doch).

3) 영가 자리뿐만 아니라, 문장 내에서도 출현할 수 있는 낱말들: aber, doch, also.

4) 문장 내에서 첫째자리에 위치하는 연결어들. 보통은 이전문장과 이후문장을 연결하는 기능만을 가진다: auch, so, dann, da(브링크만 1971(1962): 761 이하).

이것은 접속사의 통사론적 분류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브링크만의 궁극적인 관심은 이것이 아니고, 이러한 다양한 접속사들이 상황과 지평 그리고 레데 사슬 중에서 어느 것과 좀더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여기서는 통상적으로 접속사로 분류되지 않는 낱말들도 눈에 띄는데, 그래서 브링크만 자신도 좁은 의미에서 접속사는 2)와 3)뿐이라고 언급한다. 왜냐하면 1)은 문장서두로서의 역할을 하고, 4)는 der-대명사류와 동일한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4)에 있는 auch는 접속사가 아니라 문장연결(레데 사슬) 기능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브링크만 1971(1962): 762 이하를 참조). 브링크만에게 있어서 접속사 und, oder, allein(=aber), sondern, denn은 청자의 일정한 기대를 일깨우고, 청자의 기대를 고려하고, 청자의 주의를 끈다. 이를테면 und는 기대의 계속을 표현하고, 독자적인 발화들을 서로

연결시켜주고, *oder*는 이전의 것에 대한 선택적 기대를 표현한다. *allein*으로 시작되는 문장은 기대감에서 끌어내진 것인데, 기대감과 대항한다. *sondern*은 독자적인 문장의 초입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긍정의 진술문에서 부정의 문장과 대립각을 세운다. 일반적으로 *denn*은 복합문장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된다. 그러나 실제로 *denn*은 언제나 이전 문장의 특별한 이유로서 문장을 달고 다니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denn* 뒤에 하나의 온전한 문장이 따르게 된다. *aber*로 문장이 시작되면, 이것은 문장의 영가 자리를 차지하고, 어떤 새로운 계기를 선언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계기로서 *aber*가 문장 안에서 독자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두드러져 보인다(브링크만 1971(1962): 499를 참조). 이러한 접속사들은 시간 분절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브링크만은 이것을 ‘문장가교 *Satzbrücke*’라고 불렀다(브링크만 1971(1962): 499이하, 760이하를 참조). 이러한 접속사들 이외에 브링크만의 불변화사 또한 대화 파트너와의 지평과 결합한다. 헨첼 E. Hentschel의 양상 불변화사에 대한 정의도 이와 유사하다.

양상 불변화사는 언어 외적 현실에서의 개체를 나타내지 않고, 지칭되는 객체나 사태들 사이의 관계, 또는 지칭되는 객체나 사태들과 화자 또는 청자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헨첼 1986: 120, 김희자 2002: 225에서 재인용).

또한 *doch*를 설명하기 위해서 화용론적 선행 텍스트를 상정하는 디발트 G. Diwald나(디발트 1997: 77, 김희자 2002: 225를 참조),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기 위해서 언어로 실행되지 않는 화용론적 이전 텍스트와 관여적인 발화 상황을 연상해야 되는 김희자에 있어서도 브링크만과 유사한 발상들이 엿보인다(김희자 2002). 그러나 위와 같은 접속사나 불변화사 자체가 대부분 하나 이상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하위분류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다⁸⁾ 이를테면 김희자는 *doch*가 지니고 있는 세 종류의 동음이의성을 다음과 같은 예로서 기술하고 있는데,

8) 헬비히(1988: 27). 그래서 어쩌면 불변화사는 “언어라는 모피 속에서 우글거리는 이” (라이너(1951: 159), 광병휴(1995: 243)에서 재인용)일런지도 모르겠다.

- (a) Haben wir keine Getränke mehr im Haus? Doch.
- (b) Er wollte baden gehen, doch es regnete,
- (c) Es war ihm verboten zu schwimmen, er hat es doch getan.

(a)에서는 문장 등가어인 응답 불변화사로 사용되었으며, (b)는 등위 접속사, 그리고 (c)는 강세를 받는 부사로 사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c)와 같은 경우는 대화 파트너의 지평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 다음 장에서 설명하게 될 — 레데 사슬과 연관 짓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 doch는 dennoch나 trotzdem으로 다시 쓰기 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희자(2002: 227)를 참조할 것). 따라서 일방적으로 doch를 뭉뚱그려 대화 파트너와 지평과 연관된 언어요소로만 간주하는 하르트만의 방식은 충분하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점은 다음 장에서도 여전히 대두된다.

4.3. 레데 사슬과 관련된 언어요소

4.3.1. 전방지시 대명사 *anaphorische Pronomina*

브링크만에 의하면, 전방지시 대명사, 다시 말해서 학교문법에서 말하는 ‘er-대명사류(er, es, sie)’와 ‘der-대명사류(der, das, die ...)’는 레데 사슬과 관련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낱말들은 언제나 후속 문장에 등장하여, 동일한 낱말의 반복을 저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명사류는 언제나 선행 낱말(또는 문장)을 가지고 있다. er-대명사류는 자신이 새로운 이름으로 대치될 때까지 어떤 개념을 동일화시켜 기억하는데 사용된다. 그래서 브링크만은 이러한 대명사류를 ‘기억 대명사 *erinnernde Pronomina*’ 또는 ‘기억어 *Erinnerungswort*’라고 이름 지었다. 따라서 브링크만에 의하면 er-대명사류는 — 원칙적으로 — 문장의 초입에 위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텍스트에서는 종종 er-대명사류로 시작되는 경우가 있는데, 브링크만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는 “들어가기 효과 *Einstiegseffekt*”⁹⁾를 발생시키기 위해서이다. 그

9) 브링크만(1971(1962): 752). 그러나 이것은 — 엄밀히 말하자면 — 브링크만의 술어가 아니라, 만 Th. Mann의 소설 『법 *Das Gesetz*』의 첫 구절 “그의 출신은 너저분한

러나 브링크만의 이런 식의 주장은 너무 포괄적이고 신빙성이 떨어질 우려도 다분하다. 그래서 훗날의 텍스트언어학적 기계들은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설명을 준비하고 있다. 문학 텍스트는 허구이다. 허구 텍스트는 년 픽션 텍스트와 의사소통구조가 다르다. 플라톤의 크라틸로스 Kratyllos에 기댄 빌러 K. Bühler에 의하면, 언어에 의한 의사소통 모델은 의사소통 도구로서의 ‘언어’, ‘송신자’, ‘수신자’, ‘대상들과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픽션 텍스트는 그 구조가 조금 복잡하다. 사실 문학 텍스트를 허구 텍스트라고 하였지만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도 있다. 문학 텍스트의 저자는 ‘작가’이고, 읽는 사람은 ‘문학 텍스트 독자’이므로,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때문에, 우리들이 읽는 ‘장길산’이라는 소설은 그 내용(사건)은 허구지만, 소설 자체는 현실이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창비에서 출간된 12권 짜리 대하소설을 지금 읽고 있지 않은가? 현실세계와 허구세계는 서로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왕래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현실세계의 작가는 소설을 쓸 수는 있지만 허구의 세계로 가서 허구의 인물은 볼 수 없다. 그러면 허구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소설의 작가는 허구의 세계에서 이야기하는 허구의 서술자를 창조하고, 이와 유사하게 현실의 독자는 허구의 서술자를 창조한다. 허구의 서술자와 허구의 독자는 서사내용과 현실의 저자·독자 사이에 존재하는 또 다른 화자·청자이다. 소설에서 ‘er-대명사류’가 초입에 나온다고 할지라도 현실의 독자는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으며 ‘왜’라고 질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실의 독자가 창조한 허구의 독자는 이미 ‘er-대명사류’의 선행어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현실의 독자가 읽기 이전에 허구의 서술자와 허구의 독자 사이에 이미 이야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¹⁰⁾ 이렇게 설명하면, 브링크만의 추상적 표현인 ‘er-대명사류’를 텍스트의 초입에 사용하면서 얻게 되는 ‘들어가기 효과’를 보다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심각한 것은, 브링크만이 주장하듯 “‘er-대명사류’가 단지 레테 사술을 위한 역할만을 지니고 있는가?”라는 물음이다. 예를 들어 ‘er-대명사

것이였다 Seine Geburt war unordentlich”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했던 하르빅(1968: 166)의 것이다.

10) 린데만(B. Lindemann, 1978: 13), 안인경(2002: 470), 이재원 (2003: 157이하)을 참조할 것.

류’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진정근의 주장이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가지고 있다면, 브링크만의 정의하는 ‘er-대명사류’의 정의는 너무나도 협소하다.

상황 1: 화자가 지시대상을 제시, 소개하는 상황. 이 경우에는 청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흔히 체스처라든가 장소부사와 같은 언어표현도 동반되어 나타난다. 또한 사용되는 대명사는 강세를 동반하게 된다. 예를 들어 동네 골목에서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다가 어느 집의 창문을 깨뜨리게 되었는데, 이때 집주인이 손에 공을 들고 나와 아이들에게 누가 그랬는지를 묻는 말에 한 아이가 손가락을 다른 아이를 가리키며, “Er war’s/ist’s”라고 말하는 경우.

상황 2: 지시대상이 눈에 현저히 띄는 상황. 지시대상 자체가 대화상대자들의 주목을 끄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지시대상이 갖는 이목이 체스처와 강세를 불필요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타지마할을 산보하면서 “Mann! Er scheute bestimmt keine Kosten.”이라는 발화에서 대명사 er에 체스처가 수반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강세는 놓여있지 않다.

상황 3: 대화파트너가 지시대상에 같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 아버지와 아들이 백화점의 장난감 코너에서 이런 저런 장난감을 보고 있다고 상정하자. 아버지는 아들이 처음에는 로봇을 다음에는 나무로 만든 기차를 또 다음에는 모형비행기를 손에 쥐는 것을 본다. 이때 아버지는 차례로 “Gefällt er/sie/es dir?”라고 아들에게 물어본다.

상황 4: 지시대상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학교에서 한 학생이 시끌시끌한 교실 앞에서 선생님이 오시는지를 망을 보면서 하는 말이 “Er kommt!”인데, 이때 er의 지시대상이 학생들 주위의 공간에 존재하지 않지만 그 대상이 무엇인지는 분명한 것이다.

상황 5: 지시대상을 상기하는 상황. 어느 모임에서 부인이 바로 전에 어떤 여자와 유난히 흥분하여 대화를 나눴던 남편에게 그 여자가 다른 곳으로 가버린 뒤 “Na, gefällt sie dir?”라는 질문을 던지는 상황에서 대명사 sie의 사용이 바로 이러한 경우이다. (진정근 1999: 191이하)

헤르버만 C.-P. Herbermann에 기댄 위와 같은 진정근의 주장은 브링크만의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왜냐하면 상황 1), 2) 그리고 3)에서의 er-대명사류는 브링크만의 레데 사슬이 아닌 대화상황과 관련되는 용법이고, 4)와 5) 역시 지평과 관련된 용법이기 때문이다.¹¹⁾ 따라서 위와 같은 er-대명사류

가 정확하게 사용되려면 “해당 지시대상을 청자가 어떤 경우에라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지시대상의 확인성은 화자가 대명사를 발화하면서 청자를 위해 확보해야만 하는 조건이다.”(진정근 (1999: 193)). 사실 er-대명사류의 ‘전방지시적 성질’에 대한 브링크만의 주장은 그 동안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온 것이지만, 비록 er-대명사류의 핵심성질이 아닌 예외적인 것으로 치부되는 위와 같은 진정근의 논의(통틀어서 말하자면, er-대명사류의 직시적 deiktisch 성질) 또한 중요하며, 전방지시대명사로 불리는 er-대명사류가 레데 사슬에 관련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선행사와 함께 언어외적 현실 세계에 있는 대상을 공지시 Koreferenz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고 보면, er-대명사류를 단지 레데 사슬에만 관련짓는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로 간주되지는 않을 성싶다.¹²⁾ 또한 er-대명사류의 이러한 상이한 두 가지 용법을 통합하여 er-대명사류의 레데 사슬에 관여하는 기능을 상황 또는 지평의 기능에 하위 기능으로 두는 헤르버만의 주장에 이르면 그 복잡함은 더욱 커져간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논의를 벗어남으로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

기억 윤곽어인 er-대명사류와는 달리 — 브링크만에 의하면 — der-대명사류는 ‘동일화 Identifizieren’라는 자질을 소유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상황 내에서 익숙한 상대나 이전에 이미 레데(대화, 언어적 발화)를 통해서 알려진 사실을 동일시하기 때문이다.¹³⁾

11) 웨르너 역시 이것을 지평과 연관된 것으로 간주했음은 확실해 보인다. 왜냐하면 쉬는 시간이 끝난 후 학생들이 교실로 돌아올 때, 갑자기 늦게 들어오던 한 학생이 “그가 오고 있어” 또는 “그녀는 오늘 회의에 갔어”라고 말하게 되면, 학생들의 지평에서는 ‘그’ 또는 ‘그녀’가 수업을 할 선생님이라는 것을 모두 알기 때문이다. 웨르너(2002b: 57이하).

12) 이런 연유로 해서 김기영(1989: 26)에 있어서는 ‘ich, du, er, sie, es’가 함께 ‘손가락질 대명사(특정한 무엇을 가리키는 손가락질 관사와 명사가 줄어 붙은 옷가방 말로서 가리키는 대상이 상황안에 있음)’에 분류되었을 것이다.

13) 브링크만(1971(1962): 755). 그래서 서로 안면이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도중에 말하는 역할이 상대방의 일반적 지평을 통해 익숙할 때, er-대명사류는 der-대명사류로 대체된다: “Du, damit l’s nit vergiß: dasch isch denn also großartig gsi, wo de do gsait hesch, dä Film(du, damit ich’s nicht vergesse: das ist dann also großartig gewesen, was du da gesagt hast, dieser Film).” 위의 책 (752).

4.3.2. 접속사와 불변화사

브링크만에 의하면, 접속사와 불변화사는 단지 대화 파트너의 지평과 관련 될 뿐만 아니라, 레데 사슬에 관여하는 접속사와 불변화사도 있다. 브링크만에 의하면, 이에 해당되는 낱말이 da, dann, deshalb, auch 등이다. 이들은 연결어 Anschlußwort로 불리어 지는데, 문장의 첫째 자리에 위치하면서 이전 문장을 지시하며, 레데를 만들어 내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테면 — 브링크만에 의하면 — 문장을 결합하는 und, oder 등과 달리 auch는 선행문장과 후행문장을 연결해 주는 기능만을 가지기 때문에 이들과 다른 부류로 선별되어야 함이 마땅한 것이다. 그래서 다음 예문에서 auch는 ‘außerdem’의 가치를 가지면 단지 문장을 연결하는 기능만을 한다는 것이다.

Von Zeit zu Zeit fühlte Tonio, wie der Drang zu weinen ihm prickelnd in die Nase stieg; auch hatte er Mühe, sein Kinn in der Gewalt zu behalten ...
(브링크만 1971(1962): 767)

그러나 이러한 주장 또한 일반화의 오류와 관련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헬비히에 의해서 뉘앙스 불변화사 Abtönungspartikel(또는 양상불변화사 Modalpartikel)로 분류되는 ‘auch’는 ‘1) 평서문에서, 2) 결정의문문에서, 3) 보충 의문문에서: 부정적 수사적 질문, 반어법, 4) 보충 의문문 형식의 감탄문에서: 화자의 부정적 입장, 5) 명령문에서 6) 독립부문장 daß-절에서’ 등과 같이 다양한 사용법에 의한 다양한 기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¹⁴⁾ 아마도 위와 같은 경우들도 브링크만의 텍스트언어학 중심 품사론의 틀 구조에 따라 자세히 살펴보면 ‘레데 사슬’과의 관련뿐만 아니라, 지평이나 상황과의 관련도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브링크만의 분류방법이 어느 정도의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양상 불변화사가 “대부분 단음절의 짧은 단어”이며, “변화하지 않으며”, “문장성분을 이루지 못하며”, “문장의 첫째 위치에 오지 못하며”, “강세를 지니지 않으며”,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사용될 수 없으

14) 여기에 대해서는 광병휴(1995)에 자세히 나와 있음.

며”, “부정될 수 없고 추상적이며 부분적으로 모호한 의미와 기능을 가진다” (헬비히(1994: 33), 디발트(1997: 73이하), 김희자(2002: 224))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필자의 견해에 의하면, 김희자의 설명대로 양상 불변화사의 ‘모호한 의미와 기능’은 ‘화용론적 강화’ 즉 ‘상황’과 ‘시제’에 의해서 풀려질 수 있고, 이것은 언어로 표현되지 않으므로 화용론적이며 동시에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기에 앞선 것 혹은 이미 주어진 사항에 관여하기 때문에 선행 텍스트와 필연적인 관련을 맺지 않을 수 없다(김희자(2002: 225)를 참조). 따라서 어찌되었건, 접속사나 불변화사의 이해에는 필연적으로 상황과 대화 파트너의 지평 그리고 레데 사슬적인 기제들이 참여한다는 사실이다. 비록, 브링크만의 접속사나 불변화사의 분류법 자체가 엄밀하지 않을 지라도, 이러한 여러 가지 모멘트들을 텍스트 이해에 상정했다는 것은 텍스트언어학 초기의 인식으로서는 상당한 것이었다.

4.4. 브링크만의 텍스트 중심 품사론의 의의

브링크만은 위에서 언급한 기존의 품사들을 텍스트언어학적으로 재분류 한 것 이외에도 텍스트 종류의 분석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의 1971년 판 『독일어. 형태와 성능』에 ‘문장사슬의 종류 Arten der Satzfolge’라는 독립된 장을 설정한 것만을 보더라도 그것을 알 수 있다. 텍스트 종류의 구분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브링크만 뿐만이 아니라, 텍스트언어학의 효시라고 일컬어지는 하르트만의 논문(「텍스트와 텍스트들 그리고 텍스트 부류 Text·Texte·Klassen von Texten」, 1964) 제목에서도 충분히 짐작해 낼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추정하건대, 위와 같은 브링크만의 텍스트 중심 품사 분류는 텍스트 종류를 구획 짓기 위한 좋은 방법론이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브링크만은 언어상황에 따라서 ‘선적 레데 Lineare Rede: 화자 불변을 전제로 일정한 개별화자에 의한 텍스트’와 ‘교대 레데 Alternative Rede’를, 그리고 전자에서 ‘수신자 중심 텍스트 Empfängerbezogene Rede(식사, 인사말, 설교)’, ‘구속 레데 Verbindliche Rede(명령, 지시)’, ‘주모자 규정 레데 Urheberbestimmte Rede(일기장, 약속)’, ‘내용 중심 레데 Inhaltbezogene Rede(목록표, 사용지침서)’, 후자에서 ‘접촉 대화 Kontaktgespräche(담화, 만남)’, ‘방향성 있는 대화 Gerichtete Gespräche(안내,

신문), ‘다면적 대화 Pluralistische Gespräche(의견교환, 학술토론, 세미나)’ 등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브링크만 1971(1962): 768이하를 참조). 따라서 브링크만에 있어서 텍스트 종류의 구분에 대한 종차 *genus proximum*는 ‘상황’과 ‘지평’ 그리고 ‘레테 사슬’이다. 이 뿐만 아니라, 텍스트언어학은 자신의 연구대상인 ‘텍스트’에서 ‘텍스트 의의 Textsinn’의 규명이 목표이다. 이러한 텍스트 의의는 시제, 상황, 레테 사슬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코제리우의 ‘의의의 언어학으로서 텍스트언어학’과 유사한 방식이다. 따라서 브링크만의 텍스트언어학에서는 시제, 상황, 레테 연속에 대한 상호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5. 결론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전통적으로 품사에 관한 연구는 음운론, 문장론과 함께 언어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었고, 이중에서도 품사론이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었다. 이러한 주장과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브링크만에게 있어서도 언어연구의 목적은 독일어에 각인 된 형태 *Gestalt*의 차이점들을 규명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품사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브링크만 1971(1962): 서문을 참조). 브링크만은 문장에서 나타나지만, 문장을 넘어서 레테의 구성에 참가하는 언어 요소들이 있으며, 이러한 요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범주가 대명사와 접속사 그리고 문장 불변화사임을 알고 있었다. 이제 브링크만의 이러한 품사들은 문장의 성분이 아니라, 레테의 성분이 되었다. 그는 『독일어. 형태와 성능』의 서문에서 자신의 책이 이론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적합한 기술을 위해 쓰여졌다면서 겸양어법을 취하고 있지만(브링크만 1971(1962): 1), 이미 그의 많은 이론적 편린들은 텍스트언어학적 단초들을 배태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술어들과 차별화 되는 역할어, 기억어, 문장가고, 관계어. 항상성 같은 브링크만의 독자적인 술어들은 이미 훌륭한 텍스트언어학적 맹아들이다. 또한 불변화사에 대한 가치평화적인 명칭인 ‘양념어 Würzwörter’와 ‘색채어 Farbwörter’ 그리고 마치 수사학의 정의를 연상하게 하는 ‘허사/장식어 Füllwörter’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보더라도 브링

크만의 술어들은 이미 훌륭하다. 왜냐하면 불변화사는 언어학의 화용론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¹⁵⁾ 사실, 브링크만의 대명사 분류법과 유사한 방식은 한국어와 독일어의 번역계산을 목표로 하는 황중인(1983: 5이하)과 김기영(1989: 25이하)의 글에서도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이들에 있어서 대명사는 옷가방말 (품사가 각기 다른 두 개 이상의 낱말이 붙어서 하나의 낱말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관사와 명사로 나타나도록 두 낱말 이상의 길이로 늘일 수 있는데, 이때 그 관사가 1) 불특정한 것이나 셈말인 경우, 2) 특정한 무엇을 가리키는 손가락질말인 경우 그리고 3) 앞에 나온 말을 단순하게 받는 경우를 분류해서 셈 대명사, 손가락질 대명사 그리고 받는 대명사로 칭한다. 그러나 브링크만과 차이점은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자연언어의 모호함이 오해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이를 형식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대명사 분석을 시도했던 것임에 반해서, 브링크만에게 있어서는 어떤 발화의 무리를 하나의 레데(텍스트)로 만드는 장치들이 중요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독일어 불변화사의 한국어 번역가능성을 시도한 광병휴(1995)나 김희자(2002)의 연구는 미세한 부분에 있어서 브링크만의 기술보다 훨씬 정교하고 발전된 기술 형식이다. 그러나 브링크만이 — 비록 느슨한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띄지만 — 이러한 자신의 사상을 60년대 초반부터 전개해 왔다는 사실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텍스트언어학의 선구자 격으로 추앙하고 있는 ‘하르트만’, ‘하르벡’, ‘드레슬러 W. Dressler’, ‘슈미트 S. J. Schmidt’ 등의 학자들 보다 이른 시기에 텍스트언어학적 논의를 펼쳤음을 시사한다.¹⁶⁾ 비록 그의 수제자인 쉘르너가 이를 위해 고군 분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론이 학계에 거의 소개되지 않고 그저 변방에만 머무르는 이유는 아마도 ‘레데’라는 용어사용에서 유래한 불운, 그리고 윈스터 교육대

15) 김희자(2002: 224). 헬비히 G. Helbig 또한 불변화사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외국인이 독일어를 배우나 만일 불변화사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그의 독일어는 독일어권의 모국어 화자의 독일어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고 ‘어색한’ 독일어인 것이다.”(1988: 13).

16) 비록 브링크만의 마지막 장 ‘레데’ 부분이 1971년 재판 본에 추가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의 대부분은 이전에 발표된 논문들의 부분들이다. 이를테면, ‘레데’ 장의 첫 번째 절인 ‘문장과 레데 Der Satz und die Rede’도 1966년에 『Wirkendes Wort』에 게재되었던 논문이었다.

학 Pädagogische Hochschule in Münster의 ‘독어교육과’에 재직하고 있었던 연유로 인해 자신의 이론을 계승할 제자의 부족 때문이지 않은가라고 필자는 조심스레 추측해 본다.

본고의 관심은, 브링크만의 레데(텍스트)연구가 텍스트언어학의 발생시점(1964)과 거의 동등하게 또는 더 이른 시기에 행해졌으나 결코 그것에 합당한 대접이 주어지지 않았음에 대한 호소이며, 텍스트언어학적 시각에서 보는 품사론도 가능하다는 하나의 시도이다. 따라서 그의 텍스트이론이 어느 정도 소개되어 이해되고, 그곳에 내재하는 몇 가지 문제점 또한 논의되었다면, 본고는 그 목적이 이룬 셈이다.

참고문헌

- 곽병휴 (1995): 「뉘앙스 불변화사 Abtönungspartikel ‘auch’의 번역 시도」. 『독일문학 57』, 242-262.
- 김기영 (1989): 「독일어 받는 대명사에 관한 연구 -채귀대명사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기영 (2003): 「대명사의 본질 -자연언어와 형식언어의 차이-」. 『독일문학 85』, 483-502.
- 김종갑 (2004): 「저항으로서의 직설적 독서. 2004년도 한국수사학회 봄철 학술대회 (전주대학교, 2004. 05. 21-22) 발표원고, 41-48.
- 김희자 (2002): 「독일어 양상불변화사 doch의 우리말 번역 가능성」. 『독어학 5』, 223-251.
- 안인경 (2002): 「모호성의 미학과 번역」. 『게르만어문학 12』, 463-482.
- 이성만 (2000): 「텍스트문법의 매력을 찾아서 -하르베크의 이론을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8』, 161-189.
- 이재원 (2003a): 「단화(短話) ‘밤에는 쥐들도 잠잔단다’의 텍스트언어학적 분석」. 이창복 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 간행위원회 편, 『회상과 성찰』. Philos Academia 사랑의 학교, 183-207.
- 이재원 (2003b): 「유머 텍스트 연구」. 『독어교육 28』, 153-169.
- 이재원 (2004a): 「텍스트언어학 이진사」. 『텍스트언어학 16』, 21-40.
- 이재원 (2004b): 「텍스트의 선구로서 ‘레데 Rede’. -포르쾰히의 『언어의 경이

- Das Wunder der Sprache』를 중심으로-」. 『언어와 언어학 33』.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종합연구소 언어연구소, 141-155.
- 이인식 (1992): 『인간과 컴퓨터』. 까치.
- 임우영·강병창·김해생·박진권·백인옥·이완호 (2001), 『Lebendiges Deutsch für Studenten I. 대학생을 위한 활용 독일어』. 문예림.
- 장영준 (2001), 「언어의 비밀. 창조적 사고 혹은 상상력을 위하여」. 한국문화사.
- 진정근 (1999): 「독일어 3인칭 대명사의 사용과 의미」. 『독어학 1』, 189-212.
- 홍승우 (1988): 『의미론 입문』. 청록사.
- 홍승우 (1991): 『독어학개론』. 청록사.
- 황종인 (1983): 「명사붙이의 문법」. 『한글 179』, 3-27.
- 황종인 (1996): 「번역과 삐딱」. 『게르만어문학 7』, 251-266.
- Bloomfield, L. (1933): *Language*. New York.
- Brinkmann, H. (1965): Die Konstituierung der Rede. In: *Wirkendes Wort 15*, 157-172.
- Brinkmann, H. (1966): Der Satz und die Rede. In: *Wirkendes Wort 16*. 376-390.
- Brinkmann, H. (1967): Die Syntax der Rede. In: *Satz und Wort im heutigen Deutsch, Jahrbuch der Zeitschrift für deutsche Sprache 1965/1966*, 74-94.
- Brinkmann, H. (1971(1962)): *Die deutsche Sprache. Gestalt und Leistung*. Düsseldorf.
- Coseriu, E. (1981), *Textlinguistik. Eine Einführung*. Herausgegeben und bearbeitet von Jörn Albrecht. Tübingen.
- Glinz, H. (1959): Die Leistung der Sprache für Menschen. In: *Sprache-Schlüssel zur Welt. Festschrift für Leo Weisgerber*, 87-105.
- Harweg, R. (1968): *Pronomina und Textkonstitution*. München.
- Helbig, G. (1988): *Lexikon deutscher Partikeln*. Leipzig.
- Jespersen, O. (1987(1924)): 『문법철학』. 한신문화사. (이환복·이석무 공역).
- Lindemann, B., 1997): Einige Fragen an eine Theorie der sprachlichen Perspektivierung. In: P. Canisius (Hrsg.), *Perspektivität in Sprache und Text*. Bochum.
- Pike, K. L. (1994): 『언어개념』. 한국문화사. (신현숙 역).
- Reiner, L. (1951): *Der sichere Weg zum guten Deutsch*. München.
- Scherner, M. (1984): *Sprach als Text. Ansätze zu einer sprachwissenschaftlich begründeten Theorie des Textverstehens. Forschungsgeschichte - Problemstellung - Beschreibung*. Tübingen.

- Scherner, M. (2002a): 『사범대학생을 위한 텍스트 이해의 이론과 기술』. 인포그래픽. (이재원 역).
- Scherner, M. (2002b): 『텍스트는 이해를 어떻게 조종하는가? 사범대학생을 위한 텍스트언어학 입문』. 인포그래픽. (이재원 역).
- Schmitter, P. (1981): Zur Vorgeschichte der Kommunikationstheorie. In: *Sprachwissenschaft* 6, 186-199.
- Weinrich, H. (1964): *Tempus. Besprochene und erzählte Welt*. Stuttgart.
- Weinrich, H. (1969): Zur Syntax des Artikels in der deutschen Sprache. In: *Jahrbuch für internationale Germanistik I, 1*, 61-74.

Zusammenfassung

Textbezogene Wortartenlehre

— In Bezug auf ‘die Rede-Theorie’ von H. Brinkmann —

Lee, Jae-Won(Duksung Frauen Univ.)

In der vorliegenden Arbeit geht es um eine textbezogene Wortartenlehre. Dafür brauche ich die Rede-Konzeption von H. Brinkmann, der einer der Vorläufer der Textlinguistik ist. Die Rede ist dem Begriff ‘Text’ in der Textlinguistik sehr ähnlich, weil ‘Rede’ nennt Brinkmann sprachliche Einheit mündlicher oder schriftlicher Art, die nicht mehr Bestandteil höherer sprachlicher Einheiten sind. Damit man die Rede als ein sprachliches Gesamtphänomen verstehen kann, müssen nach H. Brinkmann die folgende drei Momente nötig sein: Horizont, Situation und Redefolge. Der Horizont schließen das Kommunikationspartner-Verhältnis zueinander ein, ihre soziale Rolle, ihre Erfahrungen, Erinnerungen, Erwartungen, natürlich ihr Vorwissen, alles woran sie denken. Insgesamt ist es ihr Sprachbesitz, der potentiell verfügbar ist und jederzeit aktualisiert werden kann. Im Gegensatz dazu ist die (Gespräch)situation das Maß aller syntaktischen Dinge und die Schnittfläche zweier Ordnungen, in ihr begegnen sich Sprache und Welt. Die Redefolge wird die aktualisierte Sprachphänomene genannt. Nach H. Brinkmann muß an jeder Redeeinheit potentiell Situation, Horizont und Redefolge beteiligt sein. Er subsumiert z. B. Personalpronomina und Possessivpronomina unter die situationbezogene Kategorie, die Indefinita, Negativa, Interrogativa, Konjunktionen (‘und’, ‘oder’, ‘allein (=aber)’, ‘sondern’, ‘denn’ ...) und Partikel (‘doch’ ...) unter die Horizontkategorie, die anaphorische

Pronomina ('der', 'das', 'die', 'er', 'es', 'sie' ...) unter die Redefolgekategorie. Man kann aber natürlich diese neue Kategorisierung der Wortarten von Brinkmann kritisieren. Z. B.: Das anaphorische Pronomen hat nicht nur die Funktion der Redefolge, sondern bezieht sich auch auf die Sprechsituation und Horizont. Deswegen ist die Argumentation für die neue Kategorisierung der Wortarten von Brinkmann zu schwach. Die Partikel sind auch nur naiv untersucht worden, obwohl sie manchmal mehrdeutig sein können. Trotzdem kann man seine Wortartenlehre als eine wichtige Bedeutung im Sinne der Textlinguistik betrachten, weil er immer an die Textebene denkt.

[검색어] 품사론, 텍스트언어학, 브링크만
Wortartenlehre, Textlinguistik, H. Brinkmann

이재원

471-834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40-12 이진필그린아파트 101-501

arthurlee@hanmail.net

논문 접수일: 2004. 10. 25

논문 심사일: 2004. 12. 1